

부산 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은미 · 김상수*

(부산외국어대학교 · 동명대학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 4.1. 대표 사례 분석 및 핵심 범주 도출
 - 4.2. 핵심 범주별 참여 경험 해석
 - 4.3. 소결
5.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산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사회적 자본 형성과 정주화 과정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질적 자료는 Colaizzi의 7 단계 분석 절차에 따라 수집·해석하였으며, 그 결과 유학생의 자원봉사 경험은 단순한 비교과 활동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문화 적응, 자아 성장, 시민 정체성 전환 등 다층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 경로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봉사 경험

* 제1저자: 박은미, 교신저자: 김상수

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하였고, 언어 및 문화 이해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신장시켰으며, 점차 시민적 역할 주체로서의 자각과 지속적 기여 의지를 내면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가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자본 축적과 정주 의지 강화, 사회통합의 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유학생 지원정책 및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실천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활동, 현상학적 연구,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통합

1. 서론

최근 들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정책적·학술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24년 외국인 유학생 수는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정주형 인재 육성 전략이 병행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유학생을 단순 체류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산 및 다문화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며, 실질적 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은 단순히 제도적 조건이나 학업적 지원으로 성취되기 어렵고, 양방향적 사회관계 형성과 실질적 지역참여 기반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유학생은 외국인 이주민, 이방인, 손님이라는 인식의 경계 안에서 자신만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기관 이외의 공간, 특히 지역사회라는 공적 장(場)에서 자발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신뢰를 경험하는 과정이 그들의 정착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유학생의 사회참여 기회이자, 지역사회 내 사회적 연대를 경험할 수 있는 실천적 공간으로 주목되고 있다. 자

원봉사는 도덕적 실천의 한 형태이면서도, 참여자가 소속 사회의 문제에 관여하며 이를 이해하는 과정이자,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시민적 주제로 성장해가는 경험적 장치가 될 수 있다(McBride et al., 2011; Khvorostianov & Remennick, 2017). 특히 다문화 사회, 이주적 환경에서 자원봉사는 단순한 적응이 아닌 관계 기반의 통합, 곧 실질적 사회 속 시민 됨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아울러 본 연구는 유학생의 자원봉사 경험을 사회적 자본형성의 계기로 조명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 참여,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무형의 자원으로, 사회통합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Putnam, 2000; Lin, 2001). 유학생이 경험하는 자원봉사는 개인 차원의 봉사활동을 넘어, 이질적인 문화와 사회에서의 사회적 자원 확보의 수단이면서도, 교량형 자본의 축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이들이 구축한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정착 및 통합, 시민 정체성 전이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질적 방법 중 Colaizzi의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유학생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수집하고, 자원봉사 참여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망 확장,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의 핵심 요인으로 기능하는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와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분석하는 데 적용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먼저, 본 연구의 핵심 분석 프레임으로 활용되는 사회적 자본 이론의 주요 개념과 하위 유형을 정리하고, 이어서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경험을 다룬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이론적·실천적 맥락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2.1. 사회적 자본 이론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에 형성되는 신뢰, 상호 호혜성, 공동체 규범,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되는 무형의 집단적 자원으로, 사회의 통합과 조직화, 함께 살아가는 역량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반으로 기능한다(Putnam, 2000).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타자와 맺은 관계를 통해 동원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자원”으로 정의하였으며, Lin(2001)은 네트워크의 구조, 신뢰의 수준, 참여 빈도 등을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흔히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되며, 그중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동일적 집단 내 강한 유대 기반의 응집력, 즉 내부 지지와 정서적 안정감을 의미하고,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이질적인 집단 간 연결성과 신뢰를 통하여 외연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지역 주민 및 다국적 구성원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이들이 교량적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시민적 역량을 내면화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의 경험을 생성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원봉사는 사회적 관계의 강화와 상호 신뢰 구축을 가능케 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 간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실천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 유학생의 경우 낯선 사회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은 단순한 활동 참여를 넘어 개인적 정체성 변화 및 사회적 자본 형성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2.2.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통합 관련 연구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 및 사회통합을 다룬 연구는 점차 단순 학업 지원이나 언어 적응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참여 기반의 정주형 인재 육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명광과 이윤주(2023)는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 정주 전환 경로를 분석하면서, 학문적 성취 외에 지역사회 참여의 경험이 실질적인 통합 기반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현은정(2020)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 체계적 지원,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한 요인임을 질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히 제도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내 실질적 인간관계 경험’, ‘정서적 안정감’, ‘내적 소속감’ 등이 정주(定住) 의지와 사회통합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자원봉사와 같이 자발적이고 반복적인 공동체 활동 참여가 유학생 개인의 안정, 소속감,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정착의 문제를 유학생 개인의 적응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수용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전경숙(2021)은 이주민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일수록 내국인의 편견과 위협 인식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다문화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물리적 접촉을 넘는 실질적 상호작용, 곧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공동 규범 구축이 통합을 위한 주요 과제임을 시사한다. 부산연구원(2020)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다문화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포함한 지역 중심 활동을 확대하고, 정주 기반 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2.3. 이주민 및 유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연구

자원봉사가 이민자 및 유학생의 사회적 관계 형성, 시민 정체성 내면화,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연구는 국내외에서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 김교연(2019)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봉사활동이 언어 능력 향상, 자아 성장,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증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유정숙(2012)은 결혼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가 사회적 소속

감 회복과 자기효능감 고취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권윤정(2012)은 자원봉사가 다문화 여성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매개로 기능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자원봉사는 이주 경험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소속감과 관계를 확장하는 실천 양상으로 기능한다.

국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Khvorostianov와 Remennick(2017)은 자원봉사가 구소련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수용되는 데 핵심 매개였다고 지적하였고, Handy와 Greenspan(2009)은 자원봉사가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는 전략이자, 공식 고용 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Guo(2015)는 자원봉사의 유형에 따라 민족 내부 자원봉사는 결속형 자본 형성에, 브리징 자원봉사는 외부와의 신뢰 및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한다고 분석하였다.

3. 연구 방법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본질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참여자의 일상적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그 내재된 의미 구조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체성 변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3.1. 연구 설계 및 현상학적 접근

본 연구의 분석틀은 Edmund Husserl의 현상학적 철학에 기초하여 전개된다. 현상학은 연구자가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경험의 해석자’로서, 참여자의 목소리와 언어를 중심으로 현상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단순히 개인의 표면적 진술에 머무르지 않고 숨어 있는 의미, 상황적 맥락, 감정의 변화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구조화하기 위하여,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 7단계 절차를 적용하였다. 즉, (1) 전사 자료 반복 정독, (2) 의미 있는 진술 도출, (3) 의미 단위 추출, (4) 공통 주제 도출 및 통합, (5) 주제군의 상위 범주화, (6) 경험의 본질적 구조 기술, (7) 참여자 검토의 과정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과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최대한 입체적으로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3.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특성

본 연구는 목적 표집 방법에 따라 부산 소재 B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실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 10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한국 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축적된 자.

둘째, 한국어 능력은 TOPIK 4급 이상이거나 일상적 의사소통이 자유로울 정도의 수준을 보유한 자.

셋째, 자발적으로 최소 1회 이상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명확히 확인된 자.

참여자들은 베트남, 나이지리아, 도미니카공화국, 일본, 중국, 이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 배경을 지녔으며,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의 한국 체류 기간은 약 1.5년에서 6년까지 분포하였고, 자원봉사 경험 역시 아동센터, 김장, 장애인 지원, 도서관, 문화행사 등 매우 다양하였다.

연구자는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취지와 윤리 절차, 익명성과 자료 활용 범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가명)	출신 국가	한국 체류기간	소속	자원봉사 경험
라온	도미니카 공화국	약 4년	학부	아동센터, 김장 등 다양한 활동 참여
결	나이지리아	약 4년	학부	김장 봉사, 장애인 지원 등
누리	베트남	약 6년	학부	도서관 정리, 아동 봉사활동
나래	이란	약 2년	학부	야간순찰, 노인 급식, 문화행사 등
나은	베트남	약 1.5년	대학원	아동 센터 봉사
다솜	일본	약 1.5년	학부	연탄, 김장, 노인 지원 봉사
단비	중국	약 4년	학부	마라톤, 급식 봉사
윤슬	베트남	약 5년	대학원	도서관 정리, 병원 통역
주리	인도네시아	약 4년	학부	문화행사, 축제 활동
해랑	필리핀	약 6년	학부	김장, 헌혈, 문화 발표

3.3.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자료 수집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4개월간 이뤄졌다. 참여자의 상황과 언어능력,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대면 및 온라인 화상 면담을 병행하였다. 모두 자발적 참여 동의를 받고, 면담 전 연구 목적, 절차, 비밀보장, 철회권 등 연구윤리 항목을 충분히 안내하였다. 각 인터뷰는 평균 40~50분간 진행하였으며, 필요 시 보충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언어적 선호에 따라 한국어, 영어로 유연하게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 면담지를 활용하여, 개인의 유학 동기와 배경, 본국에서의 자원봉사 경험, 한국 입학 후 봉사 참여 동기, 구체적인 봉사 활동 경험, 자원봉사가 미친 변화, 사회적 관계 형성, 정체성의 변화, 봉사 중 겪은 어려움 등을 질문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되었으며, 연구자가 전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 7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전사 자료를 반복 정독하여 전체 맥락과 분위기를 파악하였다.
- (2) 연구 질문과 관련된 핵심 진술을 식별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발췌하였다.
- (3) 각 진술에서 내재된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 (4) 유사 의미 단위 간의 맥락을 비교해 공통 주제로 통합하였다.
- (5) 주제별 범주화 및 상위 개념 구조를 도출하였다.
- (6)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경험을 서술적으로 재구성하였다.
- (7) 마지막으로 주요 해석 결과를 참여자에게 회람하여, 해석이 실제 경험에 부합하는지 검토 받았다.

4.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부산 지역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현상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이들의 사회적 통합과 정주화 과정에 미치는 의미를 해석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분석은 하나의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 경험의 흐름과 의미 구조를 먼저 조명하고, 나아가 전체 참여자로부터 도출된 공통 경험을 중심으로 네 개의 핵심 범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이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자본 형성, 정체성 변화, 지역사회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4.1. 대표 사례 분석 및 핵심 범주 도출

대표 참여자인 나래 씨의 경험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구성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래 씨는 이란 출신의 여성 유학생으로, 부산 지역 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김장, 야간순찰, 문화행사, 아동 돌봄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한

국 사회와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경험의 전개 과정 속에서 그녀는 언어 향상, 공동체 소속감, 자존감, 정체성에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2>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7단계에 따라 나래 씨의 자원봉사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2> Colaizzi의 7단계 분석 결과 요약 - 나래 사례

단계	분석 내용
1. 전체내용 파악	나래 씨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김장, 야간순찰, 문화행사, 밥퍼, 아동 돌봄 등)을 통해 한국 사회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그 경험을 통해 언어 향상과 정서적 안정, 자존감 증진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의미있는 진술도출	“버스에서 한국어를 듣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걸 정말 좋아해요.” “김장 봉사는 정말 힘들었어요. 8시간 넘게 했어요.” “자원봉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한국어도 더 익힐 수 있었어요.”
3. 의미단위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학습 동기: 문화적 매력에서 비롯 · 자발적 봉사 참여 동기 · 힘든 활동을 감수하고 성취감을 느낌 · 봉사를 통한 공동체 소속감 형성 · 한국어 능력 향상 경험
4. 주제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문화 소통 경험 · 실천적 학습 효과 · 사회적 관계 형성과 공동체 수용 · 심리적 안정감 및 자존감 회복
5. 주제통합 및 범주화	중심 주제 1: 문화 적응과 언어 향상의 실천 장 중심 주제 2: 자아 성장과 사회통합 주제로서의 자각 중심 주제 3: 자원봉사의 교육적·심리적 가치 인식
6. 총체적 기술서술	나래 씨는 봉사활동을 통해 단순한 체험을 넘어선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경험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경계 밖에 존재한다고 느끼던 그녀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수용된다는 감각을 얻었으며, 이는 자존감 회복과 정체성 강화로 이어졌다.

단계	분석 내용
7. 참여자 검토	분석 결과를 나래 씨 회담한 결과, 기술된 의미와 해석이 자신의 실제 경험과 부합한다고 확인되었으며, 특히 “공동체의 일원이 된 느낌”이라는 해석에 강하게 공감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부산 지역이라는 공간적 맥락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 참여 경험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분석과 차별점을 지닌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봉사활동은 대부분 부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프로그램, 현지 시민단체와의 협업, 지역축제 및 공공기관 연계 봉사 기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이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수용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4.2. 핵심 범주별 참여 경험 해석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된 네 가지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생생한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미와 경험의 구조를 해석하였다.

4.2.1. 사회적 관계 형성과 공동체 소속감

외국인 유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은 사회적 관계 형성, 정서적 지지 확보, 공동체 수용 경험으로 구성되며, 이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형성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봉사활동은 유학생 개개인 이 외부인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부산 지역의 공동체 일원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가능하게 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좀 그런 숫자 번호가 너무 많아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직원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친절히 설명해 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좀 편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봉사 활동하는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한국은 생활이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봉사 활동하러 오는 교수님이 겨셨어요. 그 교수님도 알게 됐어요.”_(누리)

“봉사활동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 아는 사람도 별로도 없고 시간도 그 때 또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 같이 하는 것도 좋았습니다.**”(나래)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다른 교수님이랑도 만날 수 있어요**”(라온)

“저 밖에 외국인 없고 혼자서 그러니까 봉사 활동하는 다른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서 한국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전부 친절했어요. 같이 일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어떤 분도 너무 친절했어요.”(윤슬)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히 관계를 맺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각을 심어주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특히 봉사활동 중에 한국인으로부터 감사의 인사와 인정의 표현을 받으면서, 그들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용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공동체 소속감을 강하게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외국인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한국 사회에서 기여하고 존중받는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을 재발견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내가 이 한국 사회의 한 사람으로 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말해줬어요. 진짜 외국인인데 고마워 고맙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외국인인데 이렇게 도와주니까.”(나래)

“매달에 밥퍼 활동을 해 주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밥도 하고 그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우리도 밥 먹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희가 외국인 때문에 너무 잘해 줘요.** 말할 때 못 알아들으며 더 잘 설명해 주고.. 그리고 설명하는 것도 간단하게 우리 잘 이해하게 얘기하는 거에 되게 좋았어요”(단비)

“**애들이 외국인 사람들에게 잘 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처럼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이렇게 별로 생각 없이 같이 대해주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나은)

첫 번째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인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한 사례였으며, 두 번째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한국 사회에서 환대와 배려를 받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경험한 사례였고, 마지막은 한국인들이 외국인이라는 경계 없이 친구처럼 대해 주며, 자신이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게 된 사례이다.

4.2.2. 문화 이해와 언어 적응

자원봉사활동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사회의 일상적인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실질적인 한국어 사용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였다. 김장, 전통문화 행사, 아동 교육 봉사과 같은 활동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특히 봉사활동 과정에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실수와 교정을 반복하며 실용적 언어능력을 높이는 경험이 동반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외부인으로서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참여자이자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갔다.

“김장이예요 김장 김장이요. 제가 한 번은 좀 하고 싶긴 했었어요. **그 김장을 한국 문화잖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계속해서 김장 하니까 너무 허리도 아프고 힘들었어요. 이거 문화니까 할머니들은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를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너무 감동이었어요”_(나래)

“저는 김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건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_(결)

자국 문화를 한국인들에게 소개하며 상호문화 교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어로 설명하며 언어 능력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낀 경험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내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도 하고, 관심을 가져줘서 기뻐요. **한국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연습도 되고,**

자부심도 생겼어요. 내가 그냥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알려주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_(주리)

이러한 봉사활동 참여 경험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실력 향상과 사람들과의 소통을 동시에 이루고자 한 실천적 사용자로서의 변화를 시사한다. 또한 문화 행사 참여를 통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며 학습 기회를 확장하고, 한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용적 언어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관 봉사활동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실생활에서 실용적인 언어 사용 기회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은 교실에서 배우는 문법 중심의 학습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실천적 학습의 장으로 작용하였다.

“고향에서도 봉사를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는 봉사 활동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좀 높이게 하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집단에서 봉사 동아리를 신청했어요.”_(다솜)

“특히 문화 행사할 때는 **한국어로 해야 돼서 그 때문에 한국어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았어요.”_(주리)

“**한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도서관 일하니까 쉬는 시간이 있으면 다른 책 볼 수 있고_(누리)

4.2.3. 자아 성장과 효능감 향상

자원봉사 경험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단순한 활동 참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위축되기 쉬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은 ‘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많은 참여자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 의식을 키우며, 사회적 기여자로서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경험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역할 수행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의 심리적 성장과 정체성 재구축의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아 저는 어 사회 봉사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서 원해요. 그래서 사회봉사 있으면 제가 시간도 맞추면 제가 무조건 사회봉사 하는 거예요. … **저는 뭔가 완벽 하는 느낌이 제가 스스로 보람 .보람 느낌이 들었어요.** 보람을 도와주는 주는 게 너무 좋아요. 도와주는 거 너무 좋고 보람을 느껴서 자주 참여를 하고.”_(해랑)

“봉사활동은 본 를 못 받고 하니까 더 뭔가 제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도와주는 만큼 그 사람들도 기뻐하니까 뭔가 달성감 달성, 성취감 성취감을 또 얻을 수 있고 그랬어.** 그래서 저도 기뻐지기도 하고요.”_(다솜)

“**자원봉사는 인도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_(라온)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칭찬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를 제가 놓고 있는데 새로운 것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칭찬해 주고 약간 다른 사람한테 도움 주고 있는데 그거를 다 합치면 큰 연관이잖아”_(나래)

해랑은 반복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하며 자발적 참여 의지와 자기 효능감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솜은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성취감과 달성감을 느끼며 자기 효능감을 높였으며,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존감이 상승하고 한국 사회 적응의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했음을 진술하였다. 라온은 봉사활동이 단순한 활동 참여를 넘어 인간적인 보람과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였음을 드러냈다. 나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의 자기 효능감을 동시에 경험하였음을 보여주었다.

4.2.4. 지속 참여 의지와 정체성 변화

자원봉사활동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단순한 학교 과제를 넘어선 자발적 실천 동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많은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점수 이수나 과제 수행의 목적으로 봉사에 참여했지만, 활동 과정에

서 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로 전환되었음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이 스스로를 ‘수동적인 외국인 유학생’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체’로 인식하게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봉사활동을 통해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적 책임감을 형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실 봉사는 점수를 채우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점수는 이미 넘겼지만, **계속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는 후배들에게도 봉사를 추천하고 있어요.”_(단비)

“김장 봉사도 했고, 헌혈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계속 봉사를 하고 있어요. **졸업해도 시간이 되면 꼭 하고 싶어요. 저한테는 그게 그냥 좋은 일이니까요.**”_(해랑)

“자원봉사를 통해 얻은 지식이 제 전공 공부에도 도움이 돼요. 제 전공은 글로벌 경영학인데요, 단순히 비즈니스만 배우는 게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친근하게 느끼게 할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김치 만들기나 헌혈 같은 자원봉사 경험이 그런 인간적인 가치를 알게 해줬어요.”_(라온)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 문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정말 잘 되어 있고, 체계적이에요. 제가 나중에 리더가 된다면, 이 문화를 제 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여기서 배운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예요.”_(결)

단비는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의무적 참여에서 벗어나 내재적 동기와 실천 의지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진술하였다. 그는 봉사활동을 단순한 점수 이수를 위한 과제에서 개인의 내적 동기로 전환하며, 봉사가 삶의 일부로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해랑은 필리핀과는 다른 공식화된 봉사 문화를 처음에는 신선하게 받아들였으며, 반복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감과 역할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봉사활동을 통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며,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드러낸다. 라온은 봉사활동을 통해 외국인이라는 경계를 넘어 사회적 구성원으로 수용되었음을 경험하였고, 활동 중 받은 인정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전공 학습과 연결되는 인간적 가치의 발견을 통해 봉사가 학업을 넘어 사회적 역할 학습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나이지리라 출신 결은 한국의 봉사 문화를 경험하며 자신의 나라에도 봉사 제도를 확산하고 싶다는 실천적 전망을 갖게 되었음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재구축하며, 단순한 활동 참여자를 넘어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시사한다.

4.3. 소결

외국인 유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단순한 일회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확장, 정서적 안정감, 문화 적응, 시민 정체성 형성, 그리고 지속적 지역사회 기여 동기 강화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경험으로 구조화되고 있었다. 특히 부산이라는 지역적 맥락은 자원봉사 기회의 접근성, 지역사회 수용성, 네트워크 확장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유학생의 사회적 통합과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 기반 자원봉사활동이 외국인 유학생의 교량형 사회적 자본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이들의 심리적 안정감 및 시민성 내면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다룬 학업 적응 중심 접근과는 달리, 유학생이 실제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기여하는 시민’으로 정체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가능한 정주 가능성을 갖추어 가는 질적 변화 과정을 드러낸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시민적 참여를 단순한 제도적 수용의 결과로 보지 않고, 참여자가 경험한 감정, 동기, 실천과정의 결과로 해석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이론의 실천적 적용 가능성을 확대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는 포용적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개인의 사회통합 과정과 시민적 정체성 형성에 미친 의미를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다. Colaizzi(1978)의 7단계 분석 절차에 근거한 자료 분석 결과, 유학생들의 자원봉사 경험은 단순한 학과 과제 이수나 일회성 외부활동을 넘어, 사회적 관계의 형성, 문화 적응의 진전, 자아 정체감의 재구성, 그리고 시민적 역할의 확장이라는 다차원적 변화 과정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첫째,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내에서 수용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유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공동체 소속감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김장, 전통문화축제, 아동 교육 등의 활동은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피부로 체험하고, 실용적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 속에서 문화 적응과 언어능력 향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봉사활동은 유학생들에게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거나 강화하는 맥락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업 및 대인 관계 전반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넷째, 대부분의 참여자는 초기에는 외적 동기(친구 권유, 학점 취득 등)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내재적 동기와 시민적 의식을 함양하며, 봉사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성해 나갔다.

특히, 본 연구는 유학생의 경험을 ‘정주 기반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적응중심 접근과 차별성을 갖는다.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은 대부분 유학생의 언어 습득이나 문화 체험을 위한 부수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그것이 단기 체류자의 적응 수단을 넘어 시민적 주체로의 내적 성장, 관계적 전환, 지역사회 기여의

실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가 이루어진 부산은 다양한 다문화 지원 시설과 실천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실질적인 통합 감각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봉사를 유학생에게 있어 상호문화 접촉과 사회통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회적 접속'의 장으로 재의미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주형 사회통합의 기반으로 확장되기 위한 제도적·교육적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자원봉사를 단기 비교과 활동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적 학습 경험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공별 사회봉사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학과 특성과 연계된 봉사 활동과 학점·성과 인증을 연결함으로써 유학생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간호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언어·통번역학 등 실천성이 강한 학문 분야는 지역기관과 연계한 정기적 봉사 플랫폼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자원봉사 이력의 체계적 관리 및 공식 인증 제도화가 요구된다. 일정 기준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유학생에게는 대학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글로벌 사회참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비자 연장, 취업 서류, 졸업 조건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학생의 지역사회 공헌을 가시화하며 정주화의 동기를 강화하는 실질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봉사활동이 단순한 역할 수행이 아닌 상호문화 공동체 형성의 과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국인과 외국인 유학생이 협력하는 '상호문화 팀 기반 봉사 모델' 확산이 필요하다. 공동의 사회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 예를 들어 환경 캠페인, 다문화 어린이 교육, 언어 지원 활동 등에 혼합 팀이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활동 전후에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소감 공유 워크숍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과 협력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이 자원봉사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과 정

서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전 교육자료의 다국어 번역, 한국어 멘토링 프로그램, 다문화 코디네이터의 배정 등은 유학생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통합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혼합연구 및 종단적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봉사 경험과 체류 만족도, 신뢰감, 시민성 인식의 변화 간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화 지표 개발 및 구조 방정 모형 등 구체적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학생 정책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설계의 신뢰도와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산 지역 내 특정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로,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분석 대상의 국적, 전공, 체류 기간, 성별 등의 교차 요인에 대한 체계적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폭넓은 상호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문화권과 전공군을 아우르는 집단 간 비교 연구, 정량적 분석이 병행된 혼합연구, 유학생의 봉사 경험이 고용 가능성, 시민 참여,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종단적 연구로의 확장이 요구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유학생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해당 활동이 지역사회 수혜자 및 현지 주민에게 미친 효과 역시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다차원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교연(2019).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자원봉사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S대학교의 학부 유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2), 1-29.
- 김명광, 이윤주(2023). 외국인 정주 체류를 위한 이동 경로에 대한 고찰: 외국인 학부 유학생의 관점에서, <다문화콘텐츠연구> 44, 277-308.

- 권윤정(2012). 이주여성의 자원봉사가 시민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4(2), 255-276.
- 부산연구원(2020).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공동체 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부산연구원 정책보고서> 2020-PR-05.
- 유정숙(2012). 결혼이주여성의 자원봉사가 사회적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사회연구> 5(1), 123-141.
- 이윤주, 김명광(202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체류 장벽 고찰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5(4), 107-134.
- 전경숙(2021). 이주민 및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이주학연구> 35, 79-106.
- 현은정(2020).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화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이민연구> 58, 43-72.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 Guo, C.(2015). Bridging social capital by volunteering: The role of immigrant minorities, <Voluntas> 26(1), 246-266.
- Handy, F., & Greenspan, I.(2009). Immigrant volunteering: A stepping stone to integratio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8(6), 956-982.
- Khvorostianov, N., & Remennick, L.(2017). 'By helping others, we help ourselves': Volunteering and social integration of ex-Soviet immigrants in Israel, <Voluntas> 28(1), 335-357.
- Lin, 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Bride, A. M., Sherraden, M. S., & Pritzker, S.(2011). Civic service worldwide: Impacts and inquiry, New York: M.E. Sharpe.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필자 소개

성 명 박은미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전자우편 20226416@bufs.ac.kr

성 명 김상수
소 속 동명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전자우편 kissoo@tu.ac.kr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Volunteer Activity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Park, Eun-mi · Kim, Sang-soo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ongmyo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lived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engaging in community-based volunteer activities in Busan, South Korea, us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en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a local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according to Colaizzi's seven-step phenomenological method. The findings identified four core themes that characterize the students' volunteer experiences: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and a sense of belonging, cultural understanding and language adaptation, personal growth and enhanced self-efficacy, and the development of civic identity and sustained participation. These volunteer experiences contributed not merely to fulfilling academic requirements but also to forming bridging social capital, expanding intercultural networks, and reinforcing psychological stability. Participants gradually internalized their roles as proactive contributors to the local community beyond that of passive outsiders. The study reveals that volunteer participation provides international students with an integrative platform to construct social connections, embody civic responsibility, and experience community inclusion. These findings offer practical implications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seeking to promote sustainable models of multicultural integration and reten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a regional level.

[Key words] International students, Volunteer activity, Phenomenological research, Social capital, Social integration

투고일 2025. 06. 10 / 심사일 2025. 07. 13 / 게재확정일 2025. 07. 21